

# MORNINGCALM



JULY / AUGUST  
No. 4  
2023 VOLUME 47



MORNINGCALM

KOREAN AIR

47



디지털 매거진으로 만나보세요.  
Check out the digital magazine.  
이 잡지는 항균 코팅 처리되었습니다.  
This magazine is treated with  
an antimicrobial coating.

06



© Mysteryland

14



52



## AGENDA

### 04 First Look / ZHANGJIAJIE

신이 빛은 베풀, 장자제  
Cliffs Forged by the Gods

### 06 Radar

찰스턴 / 시카고  
Charleston / Chicago  
삿포로 / 암스테르담  
Sapporo / Amsterdam  
아비뇽 / 워털  
Avignon / Wirral

### 10 Spotlight / CHANGSHA

후난성의 젊은 도시, 창사  
Hunan's Youth-Powered City

### 12 Trend

모두를 위한 여정, 봉사 여행  
Purpose-Driven Adventures

## WORLD

### 14 Bucket List / NORWAY

나의 노르웨이식 여름 휴가  
Plunging into Summer

### 24 Great Escapes / BODRUM

에게해의 숨은 낙원, 튀르키예 보드룸  
Basking in the Aegean Paradise

### 36 Hangout / KUALA LUMPUR

차이나타운의 이유 있는 변신  
Chinatown's Creative Makeover

### 44 Staycation / CALIFORNIA

우리가 꿈꾸던 캘리포니아  
California Dreaming

## SPECIAL THEME

### 52 Go Wild / COSTA RICA

코스타리카, 야생의 방주  
Living the Pura Vida

### 62 Off-Grid

문명을 떠난 여행, 오프그리드  
Disconnect to Reconnect

### 68 Taste Nature / BELGIUM

야생 농장에서 만난 자연 미식  
From Farm to Fine Dining

### 74 Sustainability

지구별 여행자를 위한 다정한 제안  
Planet-Friendly Travel



© Shutterstock

### On the Cover

이스탄불은 튀르키예의 최대 도시로, 보스포루스해협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에 걸쳐 있어 유서 깊은 역사와 독특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과거 동로마제국과 오스만제국의 수도였던 만큼 찬란한 건축물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표지 사진은 네오바로크 양식이 돋보이는 오르타코이 사원의 모습이다.

Istanbul, the largest city in Türkiye, straddles the continents of Europe and Asia and has a rich historical background and a unique culture. As the former capital of the Byzantine and Ottoman empires, the city boasts magnificent architectural structures. Seen on the cover is the Ortaköy Mosque, an impressive structure designed in a Neo-Baroque style.



대한항공은 이스탄불 직항 편을 주5회 운항한다. 이스탄불에서 국내선을 타면 보드룸까지 1시간가량 걸린다.  
Korean Air operates direct flights to Istanbul 5 times a week. There are frequent flights to Bodrum from Istanbul, with flight time a little over 1 hour.

# Basking in the Aegean Paradise



## 에게해의 숨은 낙원, 튀르키예 보드룸

전 세계 여행자들이 이스탄불과 카파도키아로 향할 때 튀르키예 사람들은 에게해의 보석 같은 반도에서 지중해식 휴양의 정수를 누린다. 고대의 전통과 유적, 현대의 예술과 미식, 문화가 한 몸처럼 어우러지는 '보드룸' 애기다.

While Türkiye's best-known destinations are Istanbul, Cappadocia and Antalya, Bodrum is a peninsula of hidden treasures where ancient traditions and ruins meet modern art, gourmet cuisine and culture.

보드룸 다운타운엔 해변에 곧장 닿을 수 있는  
세련된 감각의 바가 많다.

The Moonlight Bar is located in the bar street district of downtown  
Bodrum with a passageway to the beach.





1



1 보드룸의 풍차 언덕에 오르면 에게해의 푸른 바다와 보드룸 시내가 한눈에 담긴다. The iconic windmills of Bodrum are perched on a hilltop with a beautiful view of the Aegean Sea.

2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영묘의 터. 고대 그리스의 건축가 피티우스와 사티로스가 설계한 것으로 전해진다. The magnificent tomb built for Carian King Mausolus is believed to have been designed by the Greek architects Pythius and Satyros.



2

© Shutterstock

### 고대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땅

튀르키예 남서부, 눈부신 비취색 물빛으로 반짝이는 에게해에 면한 보드룸은 수천 년간 대양 위를 오가는 이들을 품는 거대 도시였다. 고대 그리스 도시, ‘할리카르나소스’의 터전이었던 보드룸이 세상에 알려진 건 이곳에 신비로운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 7대 불가사의이자 최초의 영묘, ‘마우솔로스의 영묘’가 바로 보드룸에 위치했다. 기원전 353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카리아의 왕 마우솔로스의 무덤으로 그의 아내이자 누이, 아르테미시아 2세가 건립했다. 영묘를 향한 관심은 압도적인 규모가 만들었다. 15세기, 십자군 성 요한 기사단이 보드룸에 성을 세울 때 건축자재로 쓴 것이 지진으로 무너진 영묘의 잔해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거대한 위용을 자랑한다. 왕과 함께 매장된 호화로운 보물, 남편의 유골을 화장하고 나온 재를 자신의 포도주에 섞어 마신 후 결국 그의 뒤를 따라간 여왕의 이야기가 더해져 이곳을 찾는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할리카르나소스 시대의 영광을 고스란히 품은 보드룸은 2012년, 보드룸에 신공항이 세워지고 글로벌 호텔 체인이 속속 들어서기 전까진 취향 좋은 튀르키예 사람들이 꿈꿨던 숨겨놓은 휴양지였다.

### Where Past Meets Present in Türkiye

Set on the coast of the Aegean in southwestern Türkiye, Bodrum has been a major metropolis for millennia. Once known as Halicarnassus, it’s home to one of the Seven Wonders of the World, the gigantic tomb of the Carian King Mausolus, who died in 353 B.C. In the 15<sup>th</sup> century, the crusader Knights of St. John made Bodrum one of their strongholds, building an imposing castle, and sourcing much of its building blocks from the ruins of the mausoleum, which had been toppled by dramatic earthquakes between the years 1100-1400.

Bodrum shrank in size and importance, but remained a summer retreat for a few Turks in the know. But a good secret is hard to keep, and its reputation and appeal swiftly grew, soon reaching a global audience. With the opening of a new airport in 2012 and the arrival of many international hotel chains, Bodrum’s infrastructure improved so dramatically that an exodus has begun from Türkiye’s big

보드룸성은 쌍둥이처럼 닮은 2개의 만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 위에 세워졌다.  
Bodrum Castle stands on a promontory that offers spectacular views of the twin bays.



도시 곳곳을 원활하게 잇는 도로와 쇼핑센터, 레스토랑, 학교 등의 인프라가 갖춰지고 발전하면서 지금은 대도시에서 사는 튀르키예 사람들이 앞다퉈 이주하는 도시가 됐다. 4년 전 보드룸으로 이주한 배우 에스라 아카야는 이 도시에서의 삶에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대도시를 떠나 보드룸으로 터전을 옮기기로 결심한 건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연과 농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도 했죠. 지금은 도시에서 이주해온 이들이 제가 꿈꿔왔던 자연 친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저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준 행운의 별에게 감사하며 지냅니다.”

### 도시의 심장부로

보드룸은 ‘다양성’의 도시다. 약 215km에 달하는 긴 해안선 덕에 ‘튀르키예의 리비에라’로 불리는 이곳엔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마을, 풍요로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해변이 넘친다. 종종 니스, 칸, 생트로페 등을 포함하는 지중해 연안의 코트다쥐르나 인근 그리스의 도데카네스제도와 비견되기도 하지만 이 도시 사람들은 보드룸이 다른 곳과 비교되기를 원치 않는다.

3 cities. Not satisfied with spending their summers here, the new generation is opting to make it their year-round home. Esra Akkaya, a well-known actress who moved to Bodrum four years ago, says, “The biggest factor in my decision to move from the big city was my desire to raise my child surrounded by nature. I thank my lucky stars every day that I live here.”

### Location, Location, Location

Bodrum has been described as the Turkish Riviera, and there are similarities — a long shore dotted with small towns, each with their own character, guaranteed sun and a bevy of beaches, but it defies comparison. Bodrum is not only the name of the entire peninsula but also, rather confusingly, that of its largest town.

This is where the historic riches are centered, including the main draw: Bodrum Castle, which now houses the Museum of Underwater Archaeology. The museum features stunning displays about shipwrecks and ancient marine commerce, countless relics and antiquities such as

다운타운엔 보드룸성과 항구, 바다가 어우러진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비치 바가 많다.  
In central Bodrum, there are beach bars with a view of Bodrum Castle, perfect for enjoying a drink as the sun sets over the bay.





귀위술리크의 리몬 카페는 에게해의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하기  
좋은 일몰 명소 중 한 곳이다.

Limon Cafe offers one of the best sunset views overlooking  
the Aegean Sea in the seaside village of Gümüşlük.







1 산지의 신선한 향을 품은 수제 올리브오일과 지중해식 애피타이저 '메제'. 게미바시 레스토랑에서 맛볼 수 있다.

Gemibaşı restaurant uses homemade olive oil and local organic products to prepare Turkish cold mezes or appetizers to share with friends and family.

2,3 창의적인 레시피로 지역, 제철 생선 요리를 내는 로컬 다이닝, 오르포즈.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테라스석을 갖췄다.

Orfoz is a restaurant in Bodrum offering a gourmet seafood menu and an impressive wine list with a view of the sea. Its menu is directly influenced by the catch of the local fishing fleet.



가장 먼저 향할 곳은 보드룸 타운. 마을에 들어서면 도시의 랜드마크, 보드룸성이 한눈에 들어온다. 15세기, 십자군 성 요한 기사단이 지은 이 요새는 '베드로의 성'으로도 불린다. 성 안엔 리모텔링을 마친 후 재개관한 수중고고학 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고대 해상무역 시대의 흔적, 난파선이 게워낸 무수한 유물과 골동품 사이에서 카리아 공주 '아다'의 석관과 꽃문양이 새겨진 금관을 찾아볼 것. 기단만 남은 영묘와 에게해가 한 품에 안기는 그리스 야외극장을 차려로 둘러보다 보면 고대와 현대가 이질감 없이 어우러지는 보드룸의 매력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역사'라는 키워드를 빼고도 보드룸엔 보고 즐길 것이 많다. 마을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귀위술리크는 보드룸 타운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가진 보헤미안 마을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적한 어촌이었던 이 동네는 석양빛으로 물든 바다를 눈에 담으며 지중해의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휴양지가 됐다. 좀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누리고 싶다면 건너편의 알르카바크로 향하자. 요트들이 정박한 항구 주변으로 쇼핑가와 레스토랑, 카페 등이 몰려 있다.

the sarcophagus and gold floral crown of Carian Princess Ada. Past and present combine with Turkish pop stars performing at its ancient classical outdoor theater, which can seat around 13,000 people, and ballet performances that use the Castle as a majestic backdrop.

For a very different vibe, head to the bohemian enclave of Gümüşlük, which once stood as a walled town known as Myndos, about a 30-minute drive away. Until a few years ago, this was a quiet fishing village with a small island enclosed by a bay, but it has become well-known for its amazing sunsets and the laid-back seafood restaurants that line its shores, including Arriba and Mimoza, as well as Limon Cafe, in the hills above. Further north on the peninsula lies Yalıkavak, which in recent years has become the luxury hub of the region. Its marina features a number of high-end shops and branches of famous eateries such as Novikov and Zuma.

## 미각으로 누리는 에게해의 맛

미식가에게 보드룸은 축복의 땅. 농작물이 '맛있게' 자라기에 알맞은 기후와 질 좋은 토양, 해산물로 가득한 바다가 끊임없이 먹거리를 내어주기 때문이다. 마을마다 각기 다른 요일에 열리는 마켓에 가면 과일, 채소, 허브와 갓 잡아 올린 생선들이 화려한 빛깔을 자랑하며 펼쳐져 있다. 이곳에서 장을 볼 기회가 있다면 에게해의 심해에 사는 '아키아'를 사서 먹어보자. 큼직하고 통통한 전갱이과 생선으로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에게해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정식은 수프와 샐러드 그리고 지중해식 전체 요리인 '메제'로 시작한다. 메인 요리인 '발르크(생선 요리)'엔 아니스 향이 물씬 나는 술 '라키'를 곁들여 즐겨보자. '코모도르'와 '게미바시'는 보드룸에서 풍미 좋은 라키로 유명한 레스토랑이다. 산지의 싱싱한 올리브를 제대로 맛보고 싶다면 비테즈 마을에 있는 '보드룸 메제지시'로 향할 것. 에게해 북쪽 지역에서 생산한 올리브를 갓 짜낸 오일로 만든 음식들을 선보인다. 건너편에 자리한 아이스크림 가게, '비테즈'는 지역 식재료를 만든 수제 아이스크림과 셔벗으로 현지인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최근 보드룸의 미식 신에선 지역 농장과 과수원에서 직접 식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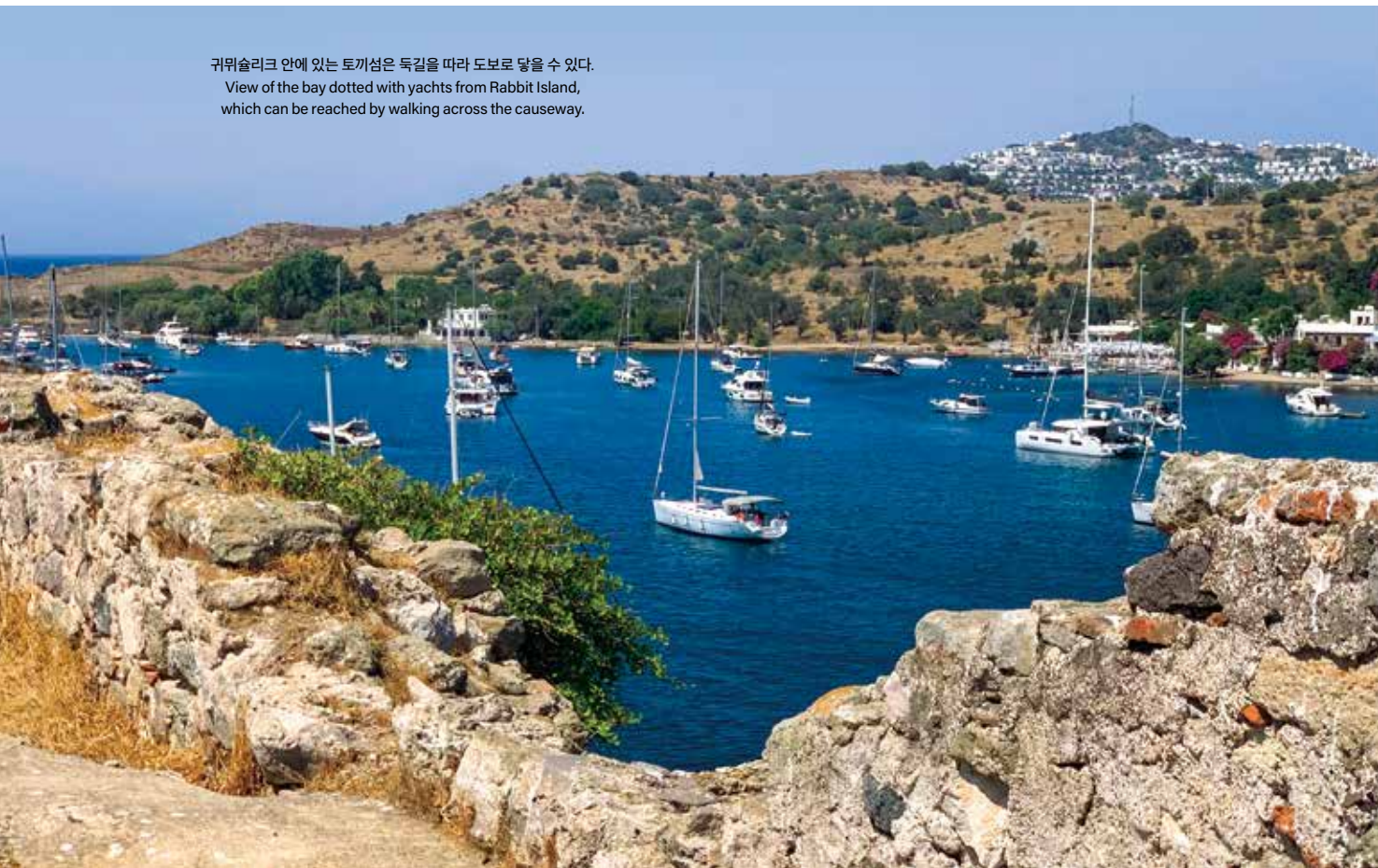
## Feast of Flavors

Bodrum is blessed with a climate and soil that nurtures amazing produce, and its waters teem with fish such as the huge *akya* (leerfish). The local produce is displayed in precarious piles at the many outdoor food markets held on different days in different towns. All this results in delicious seasonal fare, where ingredients are king.

Aegean cuisine is famed for its *meze*, or small plates of communal dishes that are often served before a main course of *balık* (fish), accompanied by Türkiye's famous ouzo-like aniseed-flavored tippie, raki. Head to Bodrum'un Mezecisi, a restaurant in the town of Bitez, to sample a selection of their gourmet dishes made with Northern Aegean olive oil. On a hot day, head across the street to Bitez Dondurma to indulge in delicious ice cream and sorbets made from fresh local ingredients.

Inspired by the riches of Bodrum's colorful orchards and farms, chef-driven dining has taken off. For the finest ex-

귀위솔리크 안에 있는 토끼섬은 독길을 따라 도보로 닿을 수 있다.  
View of the bay dotted with yachts from Rabbit Island,  
which can be reached by walking across the causeway.



1 에트림의 전통 카펫은 꽃, 뿌리, 향신료 같은 자연 소재로 염색한 실을 짜 만든다.  
Traditional carpets in Etrim are made from yarns dyed using flowers, roots and spices.

2 '에트림 할르 카펫' 전경. 원위함 바솔 패밀리는 이곳에서 수백 년 동안 전통을 이어왔다.  
Ümmüham Başol runs Etrim Hali Carpets, with family roots in the area dating back hundreds of years.



를 공수해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는 셰프들의 파인다이닝이 급 부상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식을 추구하는 '데레코이 로칸타스', 셰프의 아이디어와 감각으로 탄생한 독창적인 요리를 식탁에 내는 '오르포즈'가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개성 넘치는 지중해 코스 요리를 선사할 것이다.

튀르키예는 고대부터 이어져온 전통적인 와인 산지로 유명하다. 보드룸에 자리한 카르나스 빈야드에선 지속 가능한 농법으로 질 높은 시라즈와 진판델 와인을 비롯해 올리브오일과 치즈를 선보이고 있다. 보드룸 타운의 밀타 마리아에 자리한 '수블라 와인 숍'에선 에게해 북쪽의 갈리폴리반도에서 생산한 와인을 비롯해 다양한 튀르키예 와인을 맛볼 수 있다.

**전통에서 현대로, 공예 마을 에트림**

'괴이 카흐발트스'는 튀르키예의 전통과 정서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시골식 아침 식사'를 뜻하는 말로 오이, 토마토, 허브, 다양한 종류의 치즈와 올리브오일로 소박하게 차린 아침 밥상을 떠올리면 된다. 화덕에 구워 투박하게 뜯은 빵과 보드룸의 특산품 만달리나 마말레이드에 루비처럼 붉게 빛나는 홍차를 곁들이면 튀르

amples of this locally sourced and very creative fare, head to the hills to try Dereköy Lokantası, which offers sustainable fine-dining, or to Orfoz where nothing is on the menu but everything is on the table — everyone is served the same remarkable tasting menu featuring seafood creations with such ingredients as clams and snails.

The local produce also results in amazing beverages, both with and without alcohol. The regional variety of tangerines, known as *mandalina*, feature in the peninsula's favorite cocktail: the Satsuma Vodka. Grapes naturally grow here, and Türkiye has an ancient tradition of winemaking that dates back millennia. Today, Karnas Vineyards produces excellent, sustainable local Syrahs and Zinfandels, as well as olive oil and cheeses.

**Etrim Village: Reviving Traditional Crafts**

About a half-hour drive from Bodrum town, the Anatolian mountain village of Etrim is like a living museum. Head out



3

4

3 씨실과 날실을 성실히 엮는 장인의 손. 에트림의 공예인들은 오래전부터 전수된 전통 기술로 카펫을 만든다.

The women of Etrim have been weaving carpets for generations using time-tested techniques.

4 아름다운 색과 문양을 가진 러그. 한 장의 러그는 그 작품을 짠 이의 인생과 지역문화가 담긴 창이다.

Each rug is a window into the weaver's story and the local culture of the region in which it was made.

키에 사람들의 삶에 한달음에 닿는다.

보드룸 근교, 에트림의 '도야' 레스토랑에선 퀴이 카흐발트스를 정통으로 경험할 수 있다. 산마을인 아나톨리아에 위치한 이 식당은 숲과 농장으로 둘러싸인 전원 풍광이 음식만큼이나 감동을 선사한다. 배를 든든히 채웠다면 에트림 마을을 찾은 진짜 목적에 집중할 차례다. 튀르키예 카펫과 베틀로 짜 만든 평직물 '킬림'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에트림 할리로 향할 것. 1980년대부터 에트림을 '공예 마을'로 지켜온 바솔 패밀리는 지역 주민과 함께 킬림의 전통을 잇는다. 고전적인 기하학문양부터 현대적인 디자인을 더한 것까지 모두 마을 주민의 안마당에 있는 베틀에서 나온 작품들. 마을 곳곳을 천천히 산책하며 기웃대다 보면 목화와 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는 과정부터 천연 염색, 직조까지 킬림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눈에 담을 수 있다.

보드룸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지루함을 느끼는 것만 불가능할 뿐이다. 해변과 산, 클럽과 도서관, 고대의 흔적을 품은 폐허부터 현대적인 미술관까지 모두 품은 도시. 발굴되지 않은 유물처럼, 아직 드러나지 않은 보드룸의 매력도 여행자들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early and enjoy an incomparable traditional breakfast at the family-run Etrim Doğa restaurant. After experiencing authentic Turkish cuisine and culture there, move on to the restaurant's sister enterprise, Etrim Hali. It has been maintaining another quintessentially Turkish tradition: the dying craft of weaving Turkish carpets and flat-weave *kilims*. Since 1980, the Başol family has been committed to preserving this craft for future generations. They source the carpets directly from locals who weave them on looms in the courtyards of their homes. At the store, choose from piles of new or antique carpets featuring classic geometric patterns, many with symbols holding hidden meanings. The wool or silk carpets are often made from hand spun threads that are colored using natural dyes.

It seems nothing is impossible in Bodrum, except perhaps boredom. From beaches to mountains, nightclubs to libraries, and ancient ruins to modern galleries, Bodrum awaits to reveal its myriad charms.

## 여행자들을 위한 팁 Tips for Travelers



보드룸을 탐험하려면 대중교통보단 렌터카를 권한다. '돌무슈'라는 이름의 작은 버스가 다니지만 에어컨 시설이 없고 사람이 많다. 또 택시는 저렴하지 않다.

While there are shared minibuses called *dolmuş*, it can be crowded. Rent a car from the airport for a more comfortable way to explore the peninsula.



보드룸반도에는 올인클루시브 리조트와 5성급 럭셔리 호텔부터 에어비앤비, 펜션까지 다양한 숙박 시설이 있다. 가족이라면 '시가든', 혼자라면 '마차크즈'가, 신혼이면 '아만'이 제격.

The Bodrum Peninsula has a wide range of accommodation options, from all-inclusive resorts and luxury five-star hotels to Airbnb rentals and pensions.



돈과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면 튀르키예 뮤지엄 패스를 살 것. 2500튀르키예 리라(한화 약 13만 5400원)로 15일간 튀르키예의 300여 개 박물관과 유적에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다.

Skip the line and save with a Museum Pass Türkiye. It's Turk Lirasi 2,500 (around \$108), valid for 15 days at over 300 museums and archaeological sites.



## 세빌의 추천 여행지

### 1 아스클레피온

보드룸에서 고속 페리를 타고 20분 정도 가면 그리스의 섬 '코스'에서 당일치기 여행을 할 수 있다.

### 2 블루 크루즈

현지인에게는 '마비 울줄루크(튀르키예의 청록빛 바닷물'이라는 뜻)로 알려진 바닷길을 항해하는 블루 크루즈를 즐기자. 보트, 요트 또는 전통 고기잡이배 '굴레트'를 타고 해변을 탐방해도 좋다.

### 3 보드룸 해양박물관

보드룸 해양박물관도 방문해보자. 1층에서는 보드룸의 항해와 해면 채취 다이빙의 역사, 2층에선 이 지역 및 전 세계의 조개껍데기 수집품이 펼쳐진다.

### 4 안나 라우델 보드룸

2022년 5월 안나 라우델이 개관한 갤러리 '안나 라우델 보드룸'은 튀르키예를 비롯해 전세계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 Sevil's Recommendations

### 1 Asklepion

Head to Kos, a Greek island only 20 minutes away by fast ferry and home to the Asklepion, the birthplace of modern medicine.

### 2 Blue Cruise

Enjoy a so-called Blue Cruise to sample Türkiye's turquoise waters. Explore the shores by boat, yacht or *gulet* — a traditional vessel.

### 3 Bodrum Maritime Museum

With the history of Bodrum's sailing and sponge diving laid out on the ground floor, this museum is a great place for families.

### 4 Anna Laudel Bodrum

Opened in May 2022, this gallery founded by Anna Laudel hosts solo and group exhibitions by artists from Türkiye and beyond.